

세계도시동향

헤드라인뉴스	1	만7~16세 학생에 현상기반학습 의무화	헬싱키
산업·경제	4	빈민지구 소규모 자영업자 매장 개선비용 지원	파리
행정·교육	6	‘토크 런던’, 8개 주제로 시민의견 수렴해 정책반영	런던
환경·안전	8	도난 막는 보안기능 갖춘 스마트 자전거 거치대	샌프란시스코
도시교통	9	올림픽공원 일대서 자율주행 셔틀버스 시범운행	뉴사우스웨일즈
도시계획·주택	11	노숙자 밀집지역에 조립식 주택 활용한 보호시설 설치	로스앤젤레스
뉴스인사이드	13	언론보도 분석을 통한 세계 주요 도시 정책 이슈와 동향	뉴욕 외



만7~16세 학생에 현상기반학습 의무화

뉴스쿨 프로젝트...교과서·책상·학교 없는 학교도 시행

핀란드 헬싱키시 / 행재정·교육

- 핀란드 헬싱키시는 정부의 교육개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헬싱키 뉴스쿨 프로젝트 2016~2019’를 시행 중이며, 2019년까지 만7~16세 학생의 현상기반학습을 의무화하고 교과서·책상·학교 없는 학교 등 혁신적 교육 정책을 도입 중
- 배경: 핀란드 교육개혁
 - 핀란드는 디지털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지만, 교육 방법과 문화가 뒤쳐졌다고 인식
 - 핀란드는 2016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한 최고의 조건을 갖춘 나라로 지목
 - 핀란드 정부는 ‘스마트스쿨’이라는 콘셉트로 수업방법과 교육행정 시스템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했지만, 잘못된 교육학적 방법과 경직된 교육문화 때문에 여전히 낙후되어 있음을 자각
 - 미래 사회를 대비한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교육개혁의 필요성 제기
 -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 가르침을 받기보다 스스로 배움을 추구하는 교육을 지향
 - 교육개혁의 주요 내용
 - 총체성의 추구
 - 파편적 지식보다 현상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 많은 정보를 다룰 수 있는 능력, 살아갈 기술과 방법을 찾는 능력을 추구
 - 한 인간이자 시민으로서 배움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학생을 중심으로 인식
 - 인프라 구축: 학교에 현대적 기술 장비를 도입하고 교실의 구조를 변화
 - 교사 지원: 근본적인 교육개혁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육학적, 기술적 측면에서 재교육 시행
 - 헬싱키시는 정부의 교육개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2016년부터 뉴스쿨 프로젝트를 시범 시행 중

- 헬싱키 뉴스쿨 프로젝트 2016~2019
 - 주요 목적
 - 미래 사회의 특성을 이해하고 필요한 지식을 준비
 - 교실을 벗어나 다양한 학습 환경을 제공
 -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적극적인 수업 참여 유도
 - 학생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 의견 교환, 협업을 강화
 - 뉴스쿨 프로젝트의 5가지 테마
 - 1) 현상기반학습(Phenomenon-Based Learning)
 - 세계의 현상을 학제 간 연구를 활용해 맥락적·총체적으로 다루는 교육
 - 예시: 수업에서 기후변화를 주제로 제시하면, 학생들은 자유롭게 인터넷을 검색하고 물리·지리·경제·역사 등의 과목을 동원해 총체적으로 해당 주제를 탐구
 - 2) E-포트폴리오
 - 학생 개인별로 온라인 E-포트폴리오를 작성해 자신의 성과와 발전을 직접 작성한 텍스트·그림·동영상 등으로 축적
 - 3) 교과서 없는 학교
 - 기존의 정형화된 교과서 대신 디지털 학습자료(애니메이션, 동영상 포함)와 멀티미디어 프레젠테이션을 이용
 - 4) 책상 없는 학교
 - 교사는 칠판 앞에서 가르치고 학생은 뒤에 줄지어 앉는 방식 대신 학생들이 직접 그룹을 형성해 수업을 진행
 - 5) 학교 없는 학교
 - 전통적인 학교수업에서 탈피해 교실·등하교 시간·수업 시간표에 얽매이지 않는 대신, 프로젝트에 기반을 둔 유연한 수업 운영 방식을 도입
 - 기타 사항
 - 헬싱키시는 만7~16세의 모든 학생에게 현상기반학습을 의무화
 - 숲·카페·미술관 등 도시 전역을 교육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학제 간 수업은 교사들 간의 협업으로 진행
 - 교육개혁에 관한 재교육을 받고 새로운 방식으로 수업하는 교사에게 보너스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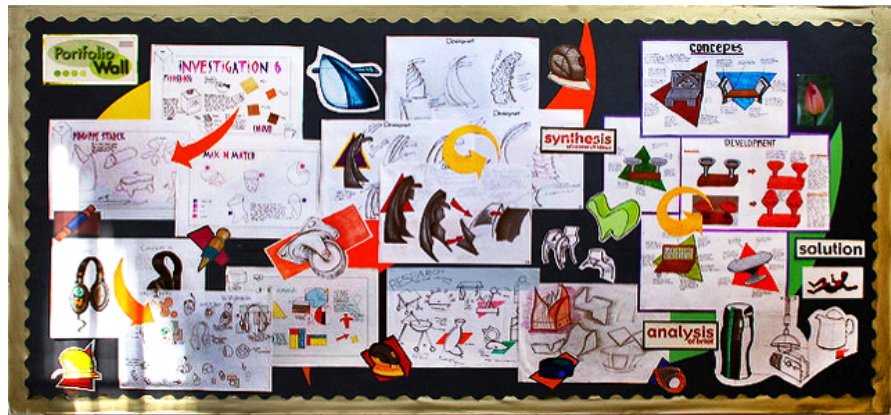


그림. 창의적인 현상기반학습의 결과물

<https://www.freiheit.org/finnlands-schulsystem-im-wandel>

<http://www.spiegel.de/lebenundlernen/schule/schule-in-finnland-reform-fuer-weniger-faecher-a-1027561.html>

<http://www.spiegel.de/lebenundlernen/schule/finnland-schulfaecher-sollen-abgeschafft-werden-a-1121123.html>

<http://www.hel.fi/www/uutiset/en/opetusvirasto/robots-support-learning>

<https://www.hel.fi/uutiset/en/kasvatuksen-ja-koulutuksen-toimiala/learning-throughout-helsinki?pd=v>

<http://www.news4teachers.de/2016/11/phaenomene-statt-faecher/>

유진경 통신원, yoojin@gmx.de

산업·경제

빈민지구 소규모 자영업자 매장 개선비용 지원

프랑스 파리市 / 산업·경제

- 프랑스 파리市는 빈민지구 내에서 하나의 매장만을 운영하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매장 개선 비용 지원을 결정하고, 해당 자영업자의 투자 제안서를 검토한 후 매장 하나당 개선비용의 80% 내에서 최대 1만 유로(1,300만 원)를 지원할 예정
- ‘자영업 지원 프로젝트’(Coup de Pouce Commerce)의 배경
 - ‘시민참여 프로젝트’에서 2016년 많은 시민의 지지로 선정된 프로젝트
 - ‘시민참여 프로젝트’는 시민이 제안한 프로젝트를 시민 투표로 선정하고, 시는 선정된 프로젝트가 실현되도록 재정과 인력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 프로젝트명은 ‘약간의 도움’을 의미하는 프랑스어 ‘쿠 드 푸스’(Coup de Pouce)와 ‘상업’(Commerce)의 합성어
 - 빈민지역이 다른 지역에 뒤처지지 않도록, 소상공인이 대자본에 밀려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파리시와 시민의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평가
 - 프랑스는 거대자본의 시장독점을 최대한 제한하려고 노력하며, 시민들도 ‘쁘띠 마가장’(Petits Magasins: 작은 가게들)이라고 불리는 동네의 작은 가게들을 지키기를 원함
- 개요
 - 빈민지구에서 영업 중인 소규모 자영업자가 매장의 환경과 질을 개선하고자 할 때, 내부공사 혹은 내부공사에 필요한 자재 구입 비용을 시가 지원
 - 구체적인 목표
 - 매장의 가시성·위생·접근성 등을 개선하여 자영업자와 고객 모두에게 더 좋은 영업 환경을 제공
 - 소규모 자영업자와 직원들이 빈민지구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계와 도구의 성능과 질, 근로환경의 안전성, 매장 위치 등을 개선

- 쓰레기 재활용 시스템, 방열, 이중창, 에너지 절약 소재 등을 활용해 환경 친화적인 매장을 조성
- 세부사항
 - 자격을 갖춘 자영업자가 투자제안서를 제출하면 심사위원회가 기준에 따라 선정
 - 신청 자격은 빈민지구에서 하나의 가게만을 운영하는 소규모 자영업자와 장인
 - 프랑스 상공인연합회 또는 장인연합회에 등록된 독립 자영업자 또는 장인
 - 매장은 반드시 빈민지구에 있어야 하며, 여러 가게를 소유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하나의 매장만 있을 것
 - 매장 이전, 인테리어 개선, 최신 전문 장비 구입, 간판 설치 등 매장개선을 위한 투자계획이 있을 것
 - 매장 하나당 내부공사 대금의 80% 내에서 최대 1만 유로(1,300만 원)를 지원
 - 총 20만 유로(한화 약 2억 6천만 원)를 투입할 예정
 - 심사 기준
 - 1) 투자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정합성과 질
 - 2) 빈민지구의 생활과 지원업종 간의 상호 통합성과 적합성
 - 3) 빈민지구 거주자의 삶의 질에 미칠 영향
 - 4) 프로젝트의 혁신성과 환경친화적인 정도

<https://www.paris.fr/actualites/participez-a-l-appel-a-projets-coup-de-pouce-commerce-4984>

<http://www.mairie19.paris.fr/actualites/appel-a-projet-coup-de-pouce-commerce-216>

배세진 통신원, prophet1013@gmail.com

행재정·교육

‘토크 런던’, 8개 주제로 시민의견 수렴해 정책반영

영국 런던市 / 행재정·교육

- 영국 런던市는 홈페이지에 ‘토크 런던’(Talk London)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시정과 관련된 8개 주제별 이슈에 관해 설문조사와 공개토론 등의 방식으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제기된 시민의견이 관련 부서에 전달되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 중
- 개요
 - 기존보다 더 열린 정부를 만든다는 개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중요한 이슈를 협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
 - 정책 수립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미래의 정책 방향 설정에 이바지
 - 런던시 홈페이지에서 참여가 가능하고, 크게 다음 8개의 주제로 분류
 - 예술과 문화(Art & Culture), 경제와 기술 및 일자리(Economy, Skill & Work), 건강(Health), 치안과 화재 및 안전(Police, Fire & Safety), 커뮤니티와 재생(Communities & Regeneration), 환경(Environment), 주택(Housing), 교통(Transport)
 - 설문조사·토론·댓글의 방법으로 의견 표출
 - 지금까지 가입자 38,475명, 댓글 7,956개, 설문조사 응답 41,591회, 주요 이슈 토론회 266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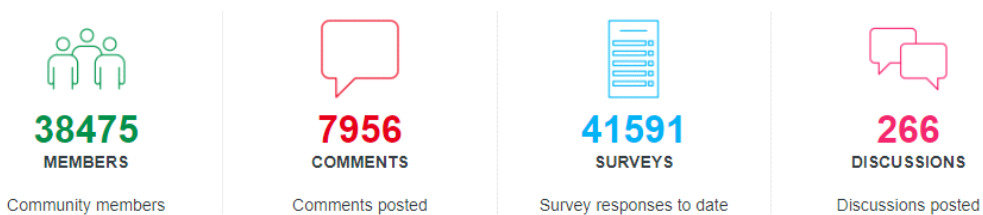


그림. 토크 런던(Talk London) 참여 현황(2017년 8월)

- 사례로 살펴본 토크 런던
 - 분야별 이슈 예시
 - 환경 분야: 녹지와 도시소음, 지역 공원 이용, 런던 생활의 평화와 안정 등
 - 교통 분야: 런던 외곽 지역의 도보환경 등
 - 건강 분야: 런던의 정신건강 등
 - 환경 분야 ‘녹지와 도시소음’(Green space & City noise) 사례
 - 지역의 공원·녹지공간에 대한 시민의견, 시민의 일상생활에 도시소음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 진행 중
 - 건강 분야 ‘런던의 정신건강’(Mental health in London) 사례
 - 배경: 런던시민의 정신건강 문제는 최근 런던시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떠올랐으며, 특히 빈곤층과 소수인종의 정신건강이 악화
 - 토론 주제: 런던 생활이 정신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반대라고 생각하나요? 어떻게 하면 학교·직장·종교시설 등이 당신의 정신건강 증진과 행복한 삶의 추구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 시민의견: 현재 자신의 실제 경험과 참신한 의견이 담긴 33개의 시민 답변이 달려 있고, 종종 시민 간에 생산적인 토론도 진행
- 정책에 미치는 영향
 - ‘토크 런던 팀’(Talk London Team)에서 모든 의견을 읽고 수렴하여 관련 부서에 전달
 - 토크 런던에서 다룬 이슈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진 사례가 다수 존재
 - 환경 분야 ‘런던의 대기 질 향상’(London Clean Air) 사례
 - 토크 런던 홈페이지에서 많은 토론과 설문 응답이 있었으며, 시장이 함께 한 시민공청회에 15,000여 명의 시민이 참가하여 의견을 개진
 - 현재 시행 중인 ‘교통혼잡금 부과지역’(London Congestion Charging Zone)과 ‘초저공해지역’(Ultra-Low Emission Zone) 등의 환경 정책 수립에 실제로 반영

<https://www.london.gov.uk/talk-london/talk-london-team>

<https://www.london.gov.uk/talk-london/follow-up-expanding-ultra-low-emission-zone>

정기성 통신원, jkseong71147@gmail.com

환경·안전

도난 막는 보안기능 갖춘 스마트 자전거 거치대

미국 샌프란시스코市 / 환경·안전

- 미국 캘리포니아州 샌프란시스코市는 도시철도(BART) 역의 자전거 도난 문제가 심각함을 인지하고, 사용자 식별 및 감시카메라 촬영 등 도난방지 보안기능을 갖춘 스마트 자전거 거치대를 시범적으로 설치
- 개요
 - 샌프란시스코시는 도시철도(BART)역의 자전거 도난 문제가 심각함을 인지
 - 과거 몇 년간 시정부에서 해결책을 모색했지만, 보안기능을 갖춘 자전거 거치대가 시중에 거의 없어 무산
 - 시민의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미국 교통기관 중 최초로 스마트 자전거 거치대 설치
 - 미션 디스트릭트(Mission District)구역과 플레전트 힐(Pleasant Hill)구역의 철도역에 시범 설치
- 주요 내용
 - 인터넷에서 이용자 등록 후 교통카드를 활용해 사용할 수 있는데, 이용료는 무료
 - 철제 프레임으로 제작해 절단이 어렵고, 감시카메라 촬영 등 스마트 보안기능 탑재
 - 철제 프레임 내부에 전선을 설치해 절단 시 알람이 울리고 이용자와 관리자에게 경보 이메일을 발송
 - 잠금장치를 여닫을 때마다 감시카메라가 사진을 촬영
 - 대당 가격이 1천 달러(113만 원)로 다소 비싸고, 자전거를 부품별로 해체하는 방식의 절도에는 여전히 취약하다는 단점
 - 도난방지 효과와 시민 호응도에 따라 다른 철도역에도 추가 설치를 고려

<https://www.citylab.com/equity/2017/06/san-franciscos-new-bike-racks-are-self-aware/530904/>

<http://www.bart.gov/news/articles/2017/news20170619>

<https://www.youtube.com/watch?v=uuKR9mXtrZQ>

강민규 통신원, mgkang82@gmail.com

도시교통

올림픽공원 일대서 자율주행 셔틀버스 시범운행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 도시교통

-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는 자율주행 셔틀버스의 기능과 안전성 등을 점검하고 관련 기술을 향상하기 위해 시드니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시범운행을 시작했으며, 결과에 따라 2년 후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활용할 예정
- 배경
 - ‘미래 교통 테크놀로지 로드맵’(Future Transport Technology Roadmap)
 - 2016년 이후 10년간 이용자 중심의 혁신적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주정부의 로드맵
 - 주요 전략
 - ① 이용자와 교통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을 개별화, ② 환승 네트워크 자동화, ③ 수요에 대응하는 유연한 교통서비스, ④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을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 ⑤ 인공지능 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 및 데이터 관리 강화
 - 로드맵 실행을 위한 ‘교통혁신센터’(Smart Innovation Centre) 설립
 - 새로운 교통 테크놀로지 연구개발의 핵심 기관
 - 자율주행 자동차·버스를 교통수단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교통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 중
 - 차세대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고 안전성 등을 점검하고 향상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기획
 - 교통혁신센터, 교통 테크놀로지 전문회사(HMI Technology), 보험회사(IAG와 NRMA), 전기회사(Telstra), 시드니 올림픽공원 간의 협력으로 추진
- 주요 내용
 - 올림픽공원 내외부를 나누어 2단계로 진행
 - 1단계는 안전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 공공도로가 아닌 공원 내부의 제한된 구간에서 미리 프로그래밍된 노선을 따라 운행

- 2단계는 올림픽공원을 포함한 일대의 공공도로에서 일반 대중이 직접 이용하며 대중교통 수단의 기능을 점점
- 운전대가 없는 완전 자율주행 셔틀버스
 - 프랑스 나비야(NAVYA)사에서 제작한 아르메(ARMA) 모델로, 최대 15명의 승객을 수용하고 최고속도 45km/h로 운행
 - 운전대가 없는 완전 자율주행 셔틀버스이고, 100% 전기로 구동되며 무선 충전(inductive charge) 방식으로 운행



그림. 시드니에서 시범운행 중인 자율주행 셔틀버스

- 시범운행의 의의
 - 자율주행 기술의 테스트만이 아닌, 전반적인 교통의 연계성(connectivity)을 높여주는 사전 작업
 - 자율주행 차량의 효과적 운행을 가능하게 하는 교통 시스템 구축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 도로 기반시설, 교통신호 체계, 승객의 스마트폰 및 앱과의 상호작용 등의 이슈 이해도를 높이고 예상되는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

<https://www.nsw.gov.au/news-and-events/news/olympic-park-to-trial-nsws-first-driverless-smart-shuttle/>

<https://future.transport.nsw.gov.au/wp-content/uploads/2016/11/Future-Transport-Technology-Overview-Roadmap-2016.pdf>

정용문 통신원, junraphael@gmail.com

도시계획·주택

노숙자 밀집지역에 조립식 주택 활용한 보호시설 설치

미국 로스앤젤레스市 / 도시계획·주택

-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市는 노숙자 밀집지역인 스킨로(Skid Row) 구역에 조립식 주택을 활용한 노숙자 보호시설을 설치할 계획이고, 이로써 지역주민의 님비현상을 줄이고 노숙자문제 해결에 도움되기를 기대
- 배경
 - 스킨로 구역은 8천~1만 1천 명의 노숙자가 상주하는 노숙자 밀집구역
 - 시민은 노숙자 밀집지역을 꺼리고, 노숙자는 더욱 몰려드는 악순환 발생
 - 노숙자 보호시설은 님비(NIMBY)현상으로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기가 어렵지만, 너무 멀리 떨어진 곳이나 범죄 위험이 많은 곳에 설치하면 정작 노숙자가 이용을 포기하는 실정
 -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건축학과와 한 수업 프로젝트에서 경량 조립식 주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
- 주요 내용
 - 조립식 주택을 활용해 관련 문제 해결을 기대
 - 조립식 주택 한 채의 넓이는 8.5㎡이고, 제작비용이 2만 5천 달러(2,825만원)로 경제적이며 트레일러트럭으로 이동이 가능
 - 법적으로 기존 노숙자 보호시설과 별개로 분류되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으며 신속한 제작과 자유로운 위치 선정이 가능
 - 깔끔한 외관으로 님비현상을 최소화
 - 시애틀과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내 다른 도시에서도 유사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

<https://www.citylab.com/design/2017/06/design-for-skid-row/532020/>

<http://madworkshop.org/homes-for-hope/>

강민규 통신원, mgkang82@gmail.com

언론보도 분석을 통한 세계 주요 도시 정책 이슈와 동향

세계 주요 도시 정책 이슈와 동향

- 미국 뉴욕市
- 영국 런던市
- 중국 상하이市

세계 주요 도시 정책 이슈와 동향

뉴욕

- 장애인·시민 모두 겨냥한 뉴욕시 디자인 가이드라인2 2017.07.05
 - 뉴욕시는 장애인과 시민 모두의 편의 증진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뉴욕시 디자인 가이드라인2’를 발표함. 지난 2010년 발표한 ‘뉴욕시 디자인 가이드라인1’을 바탕으로 연령·신체·인지 능력 등을 고려한 다양한 설계 지침을 검토하여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확대 수립함.
<http://www1.nyc.gov/office-of-the-mayor/news/458-17/mayor-de-blasio-the-publication-inclusive-design-guidelines-new-york-city-second>
- 시민 25,000명에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의료시설 건설 2017.07.18
 - 뉴욕시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료시설 ‘헬스뷰’(Healthview)를 건설하기로 함. 77,000ft²(7,135m²) 규모의 시설에 내과·소아과·산부인과·정신과·치과 등 1차 의료를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25,000명의 뉴욕시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함.
<http://www1.nyc.gov/office-of-the-mayor/news/486-17/mayor-de-blasio-plans--65-million-community-health-center-flushing#/0>

런던

- 인구증가 대비 미래 도시 디자인 비전 발표 2017.07.10
 - 런던시는 인구증가에 대비한 미래 도시 디자인 비전을 발표함. 건축, 환경, 사회, 경제 등의 분야에서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런던시의 미래 디자인 방향을 제시함. 또한 46,000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50,000개의 신규주택 건설 및 사회 기반시설 구축 등의 계획도 포함하여 수립함.
<https://www.london.gov.uk/press-releases/mayoral/mayor-sets-out-his-vision-for-the-future-of-london>
- 밤문화 활성화 등 ‘24시간 런던’ 10가지 비전 제시 2017.07.25
 - 런던시는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선도적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기 위하여 ‘24시간 런던’ 정책을 계획하고 10가지 비전을 제시함. 이번 비전은 시민과 관광객의 제안

을 바탕으로 경제 발전과 안전에 중점을 두고 런던시 밤문화와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계획함.

<https://www.london.gov.uk/press-releases/mayoral/mayors-24-hour-vision-for-london>

상 하 이

- **사회복지사 683명 고용해 청소년 범죄예방 심리상담** 2017.07.24
 - 상하이시는 인근지역의 청소년 범죄가 도시 내 범죄의 80%가 넘어 매우 심각함에 따라, 2013년부터 상하이시 및 인근지역 청소년의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기로 결정함. 5개 단체에 683명의 사회복지사를 고용하여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심리상담을 제공하기로 함.

<http://www.shanghai.gov.cn/shanghai/node27118/node27818/u22ai86949.html>
- **역사환경 보존 가이드라인 마련** 2017.07.25
 - 상하이시는 도시의 역사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도시 내 역사적 건축물 보존을 위하여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보존 건축물과 건축물 보수 규제 방안을 마련함.

<http://www.shanghai.gov.cn/shanghai/node27118/node27818/u22ai86965.html>
- **녹지공간 확충 등 도시환경 개선 46개 프로젝트 발표** 2017.07.26
 - 상하이시는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46개의 프로젝트를 발표함. 수질과 대기 오염 개선, 녹지공간 확충, 친환경 에너지 대체, 폐기물 배출 관리 등 도시 내 환경을 개선시키고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시행하기로 함.

<http://www.shanghai.gov.cn/shanghai/node27118/node27818/u22ai86981.html>

「세계 주요 도시 정책이슈와 동향」은 뉴욕, 런던, 상하이 등 세계 주요 대도시 보도자료에 발표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소개합니다. 서울시 정책 개발 및 이슈 발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정책의 선도성을 지니거나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췌하였습니다.

편집담당자 : 기획조정본부 심아름 연구원